삼성전자, 비상경영체제 돌입 노조 '파업 예고' 엇갈린 행보

사측, 유가·환율 등 변수 대응
노조,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
주요 계열사 비상경영 기조 확산

삼성전자의 노조와 사측이 중동전쟁과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 중국의 저가 공세 등 대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의 비용절감에 착수하며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상한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진행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핵심 경영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이달부터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임원 항공권 등 해외 출장 경비는 물론 부장급에만 적용되던 10시간 미만 비행 시 이코노미클래스 이용 규정을 부사장급 이하 임원으로 확대했다.

삼성전자가 핵심 계열사에 대한 비상 경영에 돌입한 것은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실적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DX부문의 영업이익은 2023년 14조4000억원, 2024년 12조4000억원, 2025년 13조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메모리 가격급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모리 가격급등은 반도체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사상 최대실적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완제품 판매비중이 높은 DX부문에는 원가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삼성 계열사들의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가전과 스마트폰에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유가 상승으로 해상운송 비용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회사 전체가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18일에 공개된다. 투표가 가결될 경우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조는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핵심 IT 계열사인 삼성SDS는 LG CNS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비용 절감과 업무 강도를 높이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LG CNS는 AI·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58.5%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SDS도 클라우드 사업이 15.4% 성장하며 IT서비스 부문에서 힘을 보탰지만, 물류 부문 부진으로 전체 성장세가 둔화됐다.

삼성SDS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출장 등의 비용도 최소화하고 있다. 삼성SDI도 전기차 수요 정체와 실적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기조에 맞춰 강도 높은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7일부터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 연료전지 엑스포 2026'에 설치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 전경.

현대차그룹, 日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국제 수소 & 연료전지 엑스포 참가
상반기 중 '디 올 뉴 넥쏘' 출시 예정

현대차그룹이 17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연료전지 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소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엑스포에서 현대차그룹은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수소 모빌리티 ▲수소 충전 및 저장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술·역량을 소개한다.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선보이며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디 올 뉴 넥쏘'는 현대차의 수소 에너지 비전과 친환경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차세대 승용 수소전기차 모델이다. 최고출력 150㎾를 발휘하는 모터가 탑재돼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7.8초의 가속 성능을 갖췄다. 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으로 최대 720㎞까지 주행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중 일본에 출시하는 모델의 경우 정전과 지진이 빈번한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비상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V2H 사양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수소전기트럭과 수소 전기트램 모형을 함께 전시해 승·상용 차량을 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수소 기반 모빌리티를 선보인다.

혁신적인 충전·저장 기술도 선보인다. 우선 로보틱스랩의 '수소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H)을 활용한 디 올 뉴 넥쏘 충전 시연을 한다.

또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모형을 전시한다. 핵심 설비를 컨테이너에 모듈화해 조립한 충전 설루션으로, 가로·세로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복층화와 지중화 기술을 접목해 도심에 적합하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6조 LFP 배터리 고객 '테슬라'

美 정부, 양사 배터리 계약 공식 확인
"북미 생산기반 바탕 글로벌 시장 공략"

미국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간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공식 확인하면서 양사의 협력 관계가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7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14~15일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장관 및 비즈니스 포럼(IPEM)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총 560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에너지·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배터리 산업을 전력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 정부는 테슬라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주 랜싱에 43억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각형 배터리 셀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했다. 해당 공장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휴스턴에서 제작되는 테슬라의 대형 ESS '메가팩3'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시한 43억달러 규모 ESS용 LFP 배터리 수주 계약의 고객사가 테슬라인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당시에는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고객사와 생산 지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꾸준히 테슬라를 유력 고객으로 지목해 왔다.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기반 LFP 배터리로 확보한 첫 대규모 고객 사례로 북미 ESS 시장 확대 국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LFP 배터리는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주도해 온 분야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조금 및 공급망 정책 대응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은 공급망 안정성과 정책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양사의 배터리 협력이 전기차 중심에서 ESS로 확장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구축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ESS 공급 역량을 확인한 사례로도 의미를 갖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전기차 중심으로 이어져 온 고객사와의 배터리 파트너십이 ESS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S에코에너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 버스덕트 공급

LSCV, 800만 달러 규모 공급계약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자회사 LSCV가 글로벌 IT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80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로 LSCV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Johor Bahru) 지역의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SCV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 수주에 이어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까지 이어지며 아세안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버스덕트와 전력케이블을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사업을 강화해 아세안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수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모비스, 車반도체·로보틱스 경쟁력 강화

정기주총서 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
이규석 사장 "글로벌 고객사 비율 확대"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 GS타워에서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 등 미래 신성장 분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 등 신성장 분야에서 조기에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강남구 역삼 GS타워에서 열린 제49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선행 연구를 활성화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글로벌 고객과 공동 선행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국과 인도 등 핵심 성장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장은 2033년까지 부품 제조 글로벌 고객사 비율을 4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61조1181억원, 영업이익 3조35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비계열사 수주 실적도 연간 91억7000만달러로 목표 대비 123% 초과 달성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 이사 재선임안과 함께 성낙섭 FTCI 담당 전무를 신규 사내 이사로 선임했다. 정 회장은 이번 재선임안이 의결되면서 지난 2019년 3월부터 8년째 대표이사직을 이어간다. 성 전무는 융복합 선행 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영역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내 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임"이라고 설명했다.

사외 이사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현주 BNY 멜론은행 한국 대표가 선임됐다.

현대모비스는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 실시를 위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도 승인했다. 이 안건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시 주총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정된 의안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이 줄면 향후 배당과 배당이 늘어나는 구조로 주주환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